

Oligodontia 청소년 환자의 보철적 수복에 관한 증례보고

박원규, 우이형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본 증례의 환자는 15세의 남성으로서 1997년 1월에 소아치과에 내원한 후 본과에 의뢰되어 왔다. 초진시 상악에는 좌, 우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좌측 유견치, 우측 영구 견치, 하악에는 좌, 우 유중절치와 유견치가 잔존하였고 방사선 사진상에서 선천적으로 영구 계승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 하 잔존 구치부 치조제의 심한 흡수양상과 상순지지 부족으로 인한 노인성 안모를 관찰할 수 있었고 환자는 심리적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다.

진단과 치료를 위해 예비인상을 채득하여 모형을 만든 후 총의치 제작에 기초하여 기초상과 교합계를 만들었다. 적절한 안모의 심미성을 보이는 상, 하악간의 수직적, 수평적 악간관계를 채득하여 모형을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인공치를 배열하였다. 배열된 인공치와 잔존 유치관계를 통해 심한 치조골 발육부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면성장은 정상적인 특징을 보였다.

잔존 유전치의 심한 치근흡수로 인해 모두 발치를 하고 #13만 남기기로 하였다. 모든 잔존 유전치를 발치한 당일 상, 하악에 즉시의치를 장착하였다. 의치의 좋은 적합을 위해 tissue conditioner를 이용하여 relining을 하였다. 3개월간의 치유기간 후 환자의 적응력과 만족감,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악간관계의 심미적, 기능적 안정성을 확인한 후 최종치료를 시행하였다.

#13를 삭제한 후 의치의 착탈방향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교합평면에 수직적으로 6도 Konus 내관과 외관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구의치를 참고하여 상, 하악을 통법대로 총의치를 제작하였다. #13의 외관은 overdenture식으로 의치에 문혔지만 #14 위치의 인공치보다 구개측에 위치하였고 길이가 짧아 상악 의치 구개측의 모양에 거의 영향을 주지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상악 의치의 유지와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일반적인 총의치를 장착한 성인과는 달리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환자에서 의치에 의한 치조골의 자극으로 치조골이 성장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상, 하악의 계속적인 안면성장을 고려하여 1년동안 3개월간의 주기적 검사를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성장을 나타내는 특징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언제나 침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주변 환경이나 친구등에 민감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 환자에게 이런 치료를 통해 심미적, 기능적 개선과 저작능력을 향상시켜 심리적으로 위축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 준것이 가장 큰 치료결과였다.